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

具 本 英

目 次

- I. 序 論
- II. 外國人 投資比率의 一般的 推移
- III. 國別 投資比率 推移
- IV. 産業別 投資比率
- V. 規模別 投資比率
- VI. 結論 및 政策的 意味

I. 序 論

外國人 投資企業은 株式의 所有形態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즉, 外國人이 100%를 全額 投資한 外國人 完全所有(wholly-owned) 企業, 外國人이 51~99%를 投資한 外國人 多數所有(majority-owned) 企

業, 外國人과 內國人이 각각 50%씩 投資한 共同所有(co-owned) 企業, 그리고 外國人이 50%미만을 投資한 外國人 小數所有(minority-owned) 企業 등이다.

이와 같은 所有形態의 차이는 外國人 投資家의 先導(initiative)에 의하여 發生할 수도 있고 資本導入國의 投資比率制限에 의하여 發生할 수도 있다. 外國投資家의 立場에서 보면 所有持分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企業의 支配權은 커지나¹⁾ 支配權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收益性 높은 事業을 認可받지 못할 가능성과 投資資本에 대한 危險負擔이 커지게 된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서 理論적으로 보면 支配權과 危險負擔의 限界費用이 같아지는 點에서 適正投資比率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資本導入國의 立場에서 보면 危險負擔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技術의 移轉이 가장 많고 支配權의 상실이 가장 적은 形態의 外國人投資를 원할 것이다. 外國人投資의 最終形態는 이와 같이 支配權, 危險負擔, 技術移轉이라는 세 變數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株式所有分과 企業에 대한 支配權은 대체로 正比例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즉, 其他株式이 여러 사람들 손에 分散되어 있을 경우, 外國投資家가 製品生産에 核心이 되는 技術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경우, 委託經營契約을 맺은 경우 등은 株式所有分과 支配權 사이에 直接的 關係가 없을 수도 있다. 株式所有와 支配權의 關係에 대하여는 Friedmann & Beguin(1971), Oman(1980) 등을 참조할 것.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相互戰略的 側面 以前에 外國人投資의 所有形態는 外國人投資家가 所有하는 技術의 獨創性, 對象으로 하는 製品販賣市場의 性格, 投資競爭國의 存在與否, 資本導入國의 貿易·關稅·租稅·產業政策 등 여러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顯示된 外國人投資形態는 上記와 같은 많은 複合的 要因들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한두 變數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本稿는 1979年 1月 1日 현재 우리나라에 現存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을 對象으로 投資比率의 一般的 推移, 國別·產業別·規模別 推移 등을 검토하여 본 것이다. 일부 결과는 아직 불만족스러우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所有形態를 國別·產業別 등으로 나누어 體系的 차이의 存在여부를 검토하고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친 變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韓國의 경우 아직 없었기 때문에 차후 投資比率에 관한 研究나 政策決定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실었다.

II. 外國人 投資比率의 一般的 推移

우리나라에는 1979年 1月 1日 현재 856個의 外國人投資企業이 存在하고 있다. 이 중 114個 企業은 馬山 및 裡里의 輸出自由地域內에

2) Wright and Russel(1975)은 技術導入契約(licensing agreement), 委託經營契約(management contracts), 「턴-키」經營契約(turn-key operations), 그리고 合作投資(equity joint venture)를 포함하는 廣意의 外國人合作投資形態를 說明하기 위하여 上記 세 變數를 사용하였다.

入住한 企業體들로서 모두 全量輸出을 條件으로 하는 100%(最初投資比率基準) 外國人投資企業들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投資比率패턴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 輸出自由地域內 入住企業體들을 標本에서 제외시키고 742個 外國人投資企業體들만을 對象으로 分析을 進행하였다.

먼저 이들 742個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別 分布를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同表를 보면 우선 外國人投資比率이 10%미만

<表 1> 外國人 投資企業의 投資比率別 分布

投資比率 (%)	最 初	構成比 (%)	現 存	構成比 (%)
1~ 10	5	(0.7)	13	(1.8)
11~ 20	19	(2.6)	28	(3.8)
21~ 30	28	(3.8)	59	(8.0)
31~ 40	98	(13.2)	114	(15.4)
41~ 50	450	(60.6)	409	(55.1)
51~ 60	24	(3.2)	22	(3.0)
61~ 70	26	(3.5)	23	(3.1)
71~ 80	23	(3.5)	17	(2.3)
81~ 90	9	(1.2)	7	(0.9)
91~100	60	(8.1)	50	(6.7)
計	742	(100.0)	742	(100.0)
(平均投資比率)	(52.2)		(48.8)	
(標準偏差)	(18.2)		(18.6)	

註：最初는 認可當時의 狀況을, 現存은 1979. 1. 1. 現在의 狀況을 나타내고 있음.

資料：經濟企劃院.

<表 2>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有形態別 分布

所有形態 ¹⁾	最 初	構成比 (%)	現 存	構成比 (%)
小數(1~49)	362	(48.8)	429	(57.8)
共同 (50)	238	(32.1)	194	(26.1)
多數(51~99)	87	(11.7)	75	(10.1)
完全 (100)	55	(7.4)	44	(5.9)
計	742	(100.0)	742	(100.0)

註：1) 괄호 안의 숫자는 外國人投資比率을 나타냄. 以後 特別히 明示되지 않는 한 모든 表의 投資比率別 所有形態 區分은 本表와 같음.

資料：經濟企劃院.

에서 100%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同表는 또한 外國人投資比率이 41~50%인 경우와 91~100%인 경우가 가장 頻度가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 投資比率의 分布를 所有形態에 따라서 區分하여 보면 <表 2>와 같다. 同表를 살펴보면 外國人小數所有企業의 比重이 48.8~57.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比重은 外國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水準으로 (後述하겠지만) 중요한 政策的 意味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頻度가 높은 形態는 外國人·內國人 共同所有企業인 바, 이는 50:50의 合作投資를 권장해 온 政府施策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現存投資比率基準으로 보면, 內國人이 적어도 50%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이 무려 84%에 달하고 있다.

이제 所有形態의 變化를 年度別로 살펴보면 <表 3>과 같다. 우선 外國人 完全所有企業이

나 外國人多數所有企業의 比重이 1968年 以來 계속 減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外國人·內國人 共同所有企業의 比重은 1968年 以來 1975년까지 계속 增加하여 왔고 최근에는 32~33% 수준에 머물고 있다. 外國人 小數所有企業의 比重은 197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73年 크게 增加하였고 그 이후 계속 增加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1968年 以來 合作投資企業(특히 外國人·內國人 共同所有企業)이 크게 增加하여 온 것으로, 그리고 1973年 부터는 外國人 小數所有企業이 상대적으로 增加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外國人 平均投資比率 또한 1968年 59.7%를 頂點으로 계속 減少하여 1978년에는 52.2%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趨勢는 政府의 外國人投資比率에 관한 施策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1962~67年間 政府의 投資比率에 관한 基本施策은 外資導入運營에 관한 基

<表 3> 所有形態의 年度別 累積分布

認可年度	所有形態							企業體數
	小數	共同	多數	完全	計	平均		
1962~66	41.2	17.6	23.5	17.6	100.0	53.9	(17)	
1967	41.9	19.4	19.4	19.4	100.0	57.9	(31)	
1968	40.7	14.8	24.1	20.4	100.0	59.7	(54)	
1969	39.5	23.5	18.5	18.5	100.0	58.7	(81)	
1970	41.5	24.6	16.9	16.9	100.0	57.3	(142)	
1971	40.8	28.6	16.3	14.3	100.0	56.6	(196)	
1972	39.0	30.3	16.9	13.8	100.0	57.0	(290)	
1973	45.1	31.8	13.7	9.5	100.0	54.1	(497)	
1974	45.9	33.0	12.4	8.7	100.0	53.4	(588)	
1975	45.9	33.3	12.4	8.4	100.0	53.1	(619)	
1976	46.7	32.5	12.4	8.4	100.0	52.9	(655)	
1977	47.5	32.4	12.2	7.9	100.0	52.6	(695)	
1978	48.8	32.1	11.7	7.4	100.0	52.2	(742)	

註: 最初投資比率 基準 構成비를 나타내 주고 있음.
資料: 經濟企劃院.

本方針(1961. 12. 15.)에 따라 國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投資比率에 制限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期間中 外國人多數所有企業과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은 오히려 增加하였다. 1968~72年間에도 投資比率에 관한 制限은 없었으나 日本과의 國交正常化에 따라 日本으로부터의 合作投資企業이 크게 增加하게 되었다. 期間中 合作投資企業 특히 完全所有企業의 增加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日·美企業의 投資行態差異에 관하여는 다음 節에서 言及 豫定임).

그러나 1973年 2月 「外國人 投資比率 調整에 관한 原則」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外國人 投資比率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 以下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1973年 以後의 外國人 小數所有企業 比重增加와 外國人 多數所有企業과 完全所有企業의 감소는 이러한 政府施策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外國人 完全所有企業의 減少와 合作投資企業의 增加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고 世界의 一般的 趨勢이었다.

즉, 1960年代 後半부터 多國籍企業의 興起 혹은 영향력의 지속적 增大에 관한 우려가 여러 學者, 政治家들에 의하여 표명되기 시작하였고, UN, OECD 등 國際機關에는 多國籍企業의 行動規範을 규정짓기 위한 委員會들이 새로이 構成되었다³⁾.

3) 가장 중요한 두 기관으로 U.N.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와 OECD Committe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를 들 수 있다.

4) Friedmann & Kalmanoff(1961)는 外國投資家들이 合作投資를 欲하는 動機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投資資本의 節約과 위험부담의 감소, 투자대상국 경영자들의 경험 이용과 고용원 士氣 유지, 국내 판매촉진, 對政府關係 개선, 그리고 投資會社에 대한 內國인들의 印象改善 등이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또한 外國人投資上 自國의 經濟開發計劃의 목적과 부합되는 활동만을 하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外國人的 完全所有企業을 不許하는 政策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開發途上國의 政策은 西歐와 日本 多國籍企業의 進出에 따라 投資先 選擇의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外國投資家들의 입장에서 開發途上國의 이러한 要求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國有化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投資資本의 危險부담을 減少시키기 위하여도 合作投資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⁴⁾. 따라서 1960年代 末부터 外國人 完全所有企業보다는 合作投資企業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增加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別, 產業別 投資比率의 分布는 아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節부터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豫定이다.

Ⅲ. 國別 投資比率 推移

1979年 1月 1日 現在 우리나라에 進出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을 國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件數基準으로 보나, 投資額基準으로 보나, 日本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가 가장 많은 편이고 다음이 美國, 西歐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으로부터의 投資中에는 在日僑胞의 投資가 특히 金額基準으로 볼 때 상당히 많았다.

件數基準 構成比와 投資額基準 構成比를 비교하여 平均投資規模를 살펴보면 西歐와 其他

地域으로부터의 경우가 平均 投資規模가 가장 큰 편이었고 日本地域으로부터의 경우가 平均 投資規模가 가장 작은 편이었다⁵⁾. 한편 最初 投資額과 現存殘額의 構成比를 비교하여 增額 傾向을 살펴보면 美國企業들의 增額이 가장 활발하였고 日本企業들의 增額이 제일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絕對金額으로 보면 日本企業들의 增額이 가장 많았다.

이제 이들 企業들의 所有形態別 分布를 國別로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우선 外國人 完全所有企業의 構成比를 國別로 보면 美國이 가장 높고 다음이 西歐, 其他, 日本地域의 順

으로 되어 있다. 반면 外國人 小數所有企業의 構成比를 살펴보면 거의 正反對의 順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多數所有企業比重的 順序는 完全所有企業比重的 경우와 共同所有 企業比重的 順序는 小數所有企業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構成比는 美國企業들의 경우, 日本이나 西歐企業들에 비하여 內國人과의 合作投資, 특히 小數所有形態의 投資를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美國投資家들의 이러한 傾向은 우리나라에만 局限되지 않은 世界的 傾向으로 Feldman

<表 4> 國別 外國人 投資現況

	企業數	構成比 (%)	最初投資額 (千弗)	構成比 (%)	現存殘額 (千弗)	構成비 (%)
日本 (在日僑胞)	563 (58)	(75.9)	347,467 (122,412)	(56.2)	500,566 (198,240)	(53.3)
美國 (在美僑胞)	107 (12)	(14.4)	114,165 (1,515)	(18.5)	201,700 (1,893)	(21.5)
西歐 (在西獨僑胞)	35 (1)	(4.7)	79,976 (120)	(12.9)	121,501 (90)	(12.9)
其他	37	(5.0)	76,784	(12.4)	114,857	(12.2)
合計	742	(100.0)	618,392	(100.0)	938,624	(100.0)

註: 輸出自由地域을 除外한 1979.1.1. 現存企業의 投資現況임.
資料: 經濟企劃院.

<表 5> 所有形態別 國別 分布

(단위: %)

	小數	共同	多數	完全	計	平均投資比率	企業體數
日本	51.3	32.7	11.0	5.0	100.0	51.6	(563)
美國	35.5	30.8	14.0	19.6	100.0	51.4	(107)
西歐	42.9	31.4	14.3	11.4	100.0	53.5	(35)
其他	54.1	27.0	13.5	5.4	100.0	44.3	(37)
平均	48.8	32.1	11.7	7.4	100.0	52.2	(742)
件數	(362)	(238)	(87)	(55)	(742)	—	—

註: 最初投資比率 基準 構成比를 나타내 주고 있음.
資料: 經濟企劃院.

5) 在日僑胞의 경우 平均投資規模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두 特定企業에 대한 投資가 많았기 때문에 全般的 傾向으로는 볼 수 없다.

(1978), Franko(1978)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지적된 바 있다.

美國 Conference Board의 2年間に 걸친 研究에 따르면 美國投資家들의 이러한 傾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要因에 起因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⁶⁾. 첫째, 많은 美國企業들의 경우 美國內市場이 他國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海外投資가 꼭 必須不可缺한 것은 아니다. 또한 資本의 調達이 他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資金의 부족 때문에 合作投資를 願하는 경우도 적다. 둘째, 美國企業들의 경우 他國企業들에 비하여 보다 獨創的인 無形資產(生産技術, 販賣技術, 商標權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資產을

他國企業들과 같이 共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⁷⁾. 셋째, 美國企業들의 전통적인 對政府關係가 日本이나 西歐企業들보다 公式的이기 때문에 資本導入國 政府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넷째, 企業體制가 他國들에 비하여 보다 中央集權的이기 때문에 合作, 특히 小數所有企業形態는 經營上 어려움이 많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美國企業들의 경향으로 많은 美國企業들은 아직 100% 全額投資를 選好하고 있다. 최근 完全所有企業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 他國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表 6〉은 美國「하버드」大學 經營大學院에

〈表 6〉 美國企業의 所有形態別 海外進出現況

(단위: %)

	小數	共同	多數	完全	不明	計	企業體數
投資比率	(5~49)	(50)	(51~94)	(95~100)			
1951~55	8.3	5.7	10.0	70.1	6.0	100.0	(989)
1956~60	8.8	7.7	9.7	66.6	7.2	100.0	(1,957)
1961~65	10.5	9.5	11.7	60.7	7.6	100.0	(3,225)
1966~70	8.5	7.3	9.4	71.2	3.7	100.0	(4,385)
1971	8.3	8.0	8.5	73.9	1.3	100.0	(905)
1972	9.0	8.7	9.6	72.3	0.5	100.0	(646)
1973	11.7	8.1	9.8	69.0	1.4	100.0	(693)
1974	13.2	8.1	7.8	70.0	1.0	100.0	(619)
1975	15.4	10.6	8.5	65.4	0	100.0	(376)
1975年末 累計	9.6	7.6	9.7	69.1	3.9	100.0	(11,198)

註: 1) 最初投資比率 基準 構成비를 나타내 주고 있음.

2) 1975年末 現在 現存企業數는 1950年 以前 進出企業들을 합치고 期間中 撤收한 企業들은 除外시킨 숫자임.

資料: J.P. Curhan, W.H. Davidson, and R. Suri, *Tracing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1977, p.310.

6) Feldman(1978)에서 引用.

7) 이정훈 교수(1980a)는 美·日企業들이 소지하고 있는 無形資產의 性格差異를 또 하나의 重要한 要因으로 指摘하고 있다. 즉, 美國企業들은 現地法人에 直接的으로 必要한 生産·經營·販賣上의 技術을 主長點으로 海外에 投資하고 있는 反面, 많은 日本企業들의 경우는 日本國內 혹은 世界市場에서의 販賣技術을 主長點으로 海外에 投資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企業들의 경우는 現地法人에 대한 支配權이 美國企業들에 비하여 덜 필요하기 때문에 所有形態의 차이가 發生한다는 것이다.

서 美國內 180個 多國籍 母企業들의 海外進出 現況에 대하여 1975年末 현재로 所有形態分布를 調査한 것이다. 同表를 보면 아주 최근에 들어와 小數所有企業과 共同所有企業의 比重이 약간 增加하는 趨勢를 보여 주고 있으나 1975年末까지도 美國의 海外投資企業中 69.1%에 달하는 企業이 美國投資先의 完全所有企業이었음을 알 수 있다.

美國企業들의 이러한 一般的 傾向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에 進出한 美國企業들의 所有形態

分布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他國들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投資比率統制를 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上記 美國企業들의 國別 所有形態別 分布를 살펴보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表 7〉은 主要地域別로 上記 180個 美國企業들의 子會社 所有形態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同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⁸⁾. 따라서 投資比率의 統制

〈表 7〉 美國 子會社들의 地域別 所有形態別 分布

(단위: %)

	小 數	共 同	多 數	完 全	不 明	計	企業體數
投資比率	(5~49)	(50)	(51~94)	(95~100)			
歐 洲	7.6	6.9	10.1	71.4	4.0	100.0	(4, 829)
中 南 美	12.2	6.5	10.6	66.8	4.0	100.0	(2, 462)
阿 洲	15.4	6.2	12.5	62.4	3.6	100.0	(585)
亞 洲	16.3	17.3	9.9	52.0	4.4	100.0	(1, 148)
(韓 國)	(21.6)	(37.8)	(10.8)	(29.7)	(0)	(100.0)	(37)
其 他	7.6	7.1	10.3	71.2	3.8	100.0	(1, 011)
計	9.6	7.6	9.7	69.1	3.9	100.0	(11, 198)

註: 1975年末 現在 現存企業의 最初投資比率 基準임.

資料: 〈表 6〉과 같음. p.314~315.

〈表 8〉 日本 現地法人의 地域別 所有形態別 分布¹⁾

(단위: %)

	小 數	共 同	多 數	完 全	計	企業體數
北 美	14.1	7.1	12.9	65.9	100.0	(707)
中 南 美	29.6	6.2	19.0	45.3	100.0	(517)
亞 洲	42.9	12.9	21.0	23.3	100.0	(1, 509)
(韓 國) ²⁾	(48.5)	(34.7)	(11.5)	(5.3)	(100.0)	
中 東	49.0	19.6	5.9	25.5	100.0	(51)
歐 洲	20.0	7.4	15.7	57.0	100.0	(446)
大 洋 洲	34.0	11.3	15.8	38.9	100.0	(203)
阿 洲	36.2	12.3	16.6	35.0	100.0	(163)
計	31.8	10.1	17.7	40.4	100.0	(3, 596)

註: 1) 1977年末 現在 現存企業의 最初投資比率 基準임.

2) 國內統計로 日本側統計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資料: 日本通産省, 『我が國企業의 海外事業活動(第8回調査)』, 1979, p.101~103.

8) 外國의 경우 60年代 以前에 進出한 外國人投資企業들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많았기 때문에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높은 면도 있으나 60年代 以後 進出한 企業들만을 標本으로 比較하여 보아도 비슷한 結論이 나올 것으로 豫想

는 分明 美國企業의 韓國內 投資를 抑制하여
은 한 중요한 要因으로 판단되고 있다.

日本 海外現地法人의 日本側 出資比率分布
를 地域別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結論을 얻을

수 있다. <表 8>은 日本 海外現地法人의 所有
形態別 分布를 보여주고 있는 바 前述한 바
와 같이 美國에 비하여는 合作企業의 比重이
크고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적은 편이다. 그

<表 9> 所有形態의 年度別 累積分布(美國人投資企業)

(단위: %)

	小 數	共 同	多 數	完 全	計	件 數
1962~66	44.4	22.2	11.1	22.2	100.0	(9)
1967	35.7	21.4	7.1	35.7	100.0	(14)
1968	40.0	16.0	12.0	32.0	100.0	(25)
1969	35.5	16.1	16.1	32.3	100.0	(31)
1970	33.3	15.4	17.9	33.3	100.0	(39)
1971	33.3	15.6	15.6	35.6	100.0	(45)
1972	29.1	20.0	14.5	36.4	100.0	(55)
1973	33.3	20.6	14.3	31.7	100.0	(63)
1974	31.0	23.9	15.5	29.6	100.0	(71)
1975	30.8	26.9	15.4	26.9	100.0	(78)
1976	29.8	28.6	16.7	25.0	100.0	(84)
1977	32.0	30.9	15.5	21.6	100.0	(97)
1978	35.5	30.8	14.0	19.6	100.0	(107)

註: 最初投資比率 基準 構成比를 나타내 주고 있음.

資料: 經濟企劃院.

<表 10> 所有形態의 年度別 累積分布(日本人投資企業)

(단위: %)

	小 數	共 同	多 數	完 全	計	件 數
1962~66	0	50.0	50.0	0	100.0	(2)
1967	50.0	16.7	33.3	0	100.0	(6)
1968	35.3	11.8	41.2	11.8	100.0	(17)
1969	41.2	26.5	20.6	11.8	100.0	(34)
1970	43.9	28.0	15.9	12.2	100.0	(82)
1971	43.0	32.8	15.6	8.6	100.0	(128)
1972	40.3	34.0	17.0	8.7	100.0	(206)
1973	46.9	33.9	13.0	6.2	100.0	(401)
1974	48.4	34.9	11.3	5.4	100.0	(479)
1975	48.5	34.7	11.5	5.3	100.0	(495)
1976	49.5	33.7	11.4	5.4	100.0	(517)
1977	50.2	33.1	11.4	5.2	100.0	(534)
1978	51.3	32.7	11.0	5.0	100.0	(563)

註: 最初投資比率 基準 構成比를 나타내 주고 있음.

資料: 經濟企劃院.

되고 있다. 分布가 나타난 總 66個 國家中 1975年末 現在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은 우리나라가 29.7%로 가장 낮았고,
50% 미만인 國家도 이스라엘 30%, 日本 33.1%, 사우디아라비아 36.4%, 니카라과 39.1%, 印度 39.6%, 파키스탄
42.4%, 모로코 44.8%, 스웨덴 46.3%, 이란 47.8% 등 總 10個國에 불과하였다.

러나 日本의 경우도 1977年末 現在 全世界의 으로는 약 40%의 現地法人이, 그리고 日本의 經濟的 支配에 대하여 항상 우려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23.3%의 現地法人이 日本人 完全所有企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完全所有企業의 比重 5.3%는 他國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水準으로 政府의 投資比率統制가 매우 엄격하였음을 다시 한번 반증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⁹⁾.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美國과 日本企業의 경우, 所有形態別 推移를 年度別로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발견할 수 있다(表 9~表 10). 즉, 完全所有企業의 減少趨勢는 <表 3>의 全外國人投資業體의 경우와 비슷하나 美國의 경우는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감소하며 共同所有企業의 比重이 주로 增加하였고 日本의 경우는 完全(혹은 多數) 所有企業의 比重이 減少하며 小數所有企業의 比重이 주로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推移는 前述한 美國企業들의 小數所有企業不願 傾向을 다시 한번 잘 反映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¹⁰⁾.

美國企業들의 이러한 支配權喪失不願傾向은 投資比率의 變化件數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表 11>은 國別로 最初 投資比率이 그후

減少한 企業數를 나타내 주고 있는 바, 美國의 경우 投資比率 減少企業數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다¹¹⁾.

그러나 國家에 따라 產業別 投資比重이 다를 수 있고 產業別로 平均投資比率이 體系的으로 다를 수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음 產業別 投資比率推移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IV. 產業別 投資比率

우선 產業別 外國人投資現況을 國別로 살펴 보면 <表 12>와 같다. 日本의 경우는 그간 宿泊業, 化學, 組立金屬, 纖維關聯部門에의 投資가 많았으며 美國과 西歐의 경우에는 化學, 組立金屬關聯部門에의 投資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化學(36), 組立金屬(20), 宿泊業(18), 纖維部門(8)에의 投資가 總外國人投資의 83%를 차지하고 있다¹²⁾.

이제 韓國標準產業分類(KSIC) 2單位 產業別로 外國人投資企業의 所有形態를 살펴보면 <表 13>과 같다. 外國人 完全所有企業이 相對的으로 많은 部門은 非金屬礦物, 對事業體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外國人 小數所

<表 11> 投資比率 減少企業數

	投資比率 減少企業數 (A)	總企業數 (B)	比 重 (A/B)·100
日 本	125	563	22.2
美 國	9	107	8.4
西 歐	3	35	8.6
其 他	9	37	24.3
計	146	742	19.7

註: 1979.1.1. 現在 現存投資比率이 最初投資比率보다 적은 企業體數임.

資料: 經濟企劃院.

- 9) 日本의 경우 馬山輸出自由地域에 進出한 103個의 日本人 全額投資企業을 標本에 합하면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15.9%로 증가하나 이 역시 世界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 10) 西歐의 경우는 標本數가 작아 확실한 推移를 알기 어려웠다.
- 11) Franko(1971)는 合作投資企業의 投資比率變化要因에 관하여 母企業의 組織, 產業特性 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分析을 하고 있다.
- 12) 產業別 外國人投資의 比重을 外國人投資 絕對額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진정한 각 산업별 外國人投資의 重要性은 國內市場規模, 產業의 相對的 資本集約度 등을 감안하여야만 알 수 있다.

〈表 12〉 國別 產業別 外國人 投資現況

(단위 : 千弗)

	日 本		美 國		西 歐		其 他		計	
	投資額	企業數	投資額	企業數	投資額	企業數	投資額	企業數	投資額	企業數
農 林·水 產	1,784	10	—	—	—	—	15	1	1,799	11
飲 食 料 品·담 배	5,967	29	5,504	12	1,567	4	203	1	13,241	46
織 維·衣 服·가 죽	76,719	84	1,005	6	950	1	469	1	79,143	92
나 무 및 나 무 製 品	492	6	—	—	—	—	200	1	692	7
종 이·印 刷·出 版	4,694	10	1,675	2	—	—	531	1	6,900	13
化 學·石 油·플라 스틱	118,583	71	82,050	17	75,554	12	62,320	7	338,507	107
非 金 屬 鑛 物	12,846	31	2,400	1	590	2	—	—	15,836	34
第 1 次 金 屬	18,013	23	—	—	2,781	2	4,928	2	25,722	27
組 立 金 屬·機 械 裝 備	91,513	229	69,127	47	21,981	10	8,263	10	190,884	296
기 타 製 造 業	5,613	37	750	5	—	—	—	—	6,363	42
宿 泊 業	150,550	18	3,300	1	4,620	1	10,674	5	169,144	25
運 輸 · 倉 庫	799	2	12,147	5	—	—	8,587	2	21,533	9
金 融	—	—	—	—	13,458	3	18,667	6	32,125	9
對 事 業 體 서 비 스	9,200	9	23,692	10	—	—	—	—	32,892	19
기 타 서 비 스	3,793	4	50	1	—	—	—	—	3,843	5
計	500,566	563	201,700	107	121,501	35	114,857	37	938,624	742

註：1979.1.1. 現在 現存企業의 現存殘額을 나타내고 있음.
資料：經濟企劃院.

〈表 13〉 產業別 所有形態別 分布

(단위 : %)

	小 數	共 同	多 數	完 全	計	平 均 投 資 比 率	件 數
農 林·水 產	81.8	18.2	—	—	100.0	48.8	(11)
飲 食 料 品·담 배	73.9	15.2	8.7	2.2	100.0	46.8	(46)
織 維·衣 服·가 죽	67.4	10.9	15.2	6.5	100.0	51.9	(92)
나 무 및 나 무 製 品	28.6	71.4	—	—	100.0	48.4	(7)
종 이·印 刷·出 版	38.5	38.5	23.1	—	100.0	49.6	(13)
化 學·石 油·플라 스틱	38.3	46.7	8.4	6.5	100.0	50.7	(107)
非 金 屬 鑛 物	58.8	17.6	5.9	17.6	100.0	55.8	(34)
第 1 次 金 屬	66.7	25.9	7.4	—	100.0	44.0	(27)
組 立 金 屬·機 械 裝 備	44.3	36.5	10.5	8.8	100.0	53.1	(296)
기 타 製 造 業	40.5	33.3	16.7	9.5	100.0	56.1	(42)
宿 泊 業	28.0	28.0	36.0	8.0	100.0	58.4	(25)
運 輸 · 倉 庫	22.2	77.8	—	—	100.0	47.8	(9)
金 融	44.4	44.4	11.1	—	100.0	45.1	(9)
對 事 業 體 서 비 스	42.1	26.3	15.8	15.8	100.0	57.3	(19)
기 타 서 비 스	40.0	20.0	40.0	—	100.0	57.2	(5)
平 均	48.8	32.1	11.7	7.4	100.0	52.2	(742)

註：最初投資比率 基準임.
資料：經濟企劃院.

有企業이 많은 部門은 農林水産, 飲食料品, 담배, 纖維, 衣服, 가죽, 第1次金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平均投資比率은 宿泊業, 서비스業, 其他 製造業, 非金屬鑛物 등이 相對的으로 높은 水準을 보여 주고 있다.

産業別 投資比率에 관한 分析을 위하여서는 우선 이에 관한 政府의 指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3年 3月부터 施行되어 온 産業別 外國人投資比率에 관한 政府의 指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¹³⁾.

첫째, 다음 事業들은 外國人이 50% 미만의 株式券에 所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① 單純勞動集約的 事業
- ② 單純保稅加工事業
- ③ 主要原資材를 國內에 依存하는 事業
- ④ 內需만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둘째, 그러나 다음 事業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

- ① 國內關聯企業과 市場·技術面에서 競爭하지 않는 全量輸出事業
- ② 國內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는 技術集約的 輸出 혹은 輸入代替用原資材事業
- ③ 外國에서도 100% 以外에는 投資하지 않는, 그러나 國內誘致가 바람직한 多國籍 企業의 事業
- ④ 所要資金, 懷妊期間, 高度의 技術 등으로 國內關聯企業들의 投資가 不可能한 事業
- ⑤ 特定工團入住事業
- ⑥ 僑胞投資事業

13) 外國人投資에 관한 政府의 指針은 1973年 3月 制定以來 數次에 걸쳐 改定되었는 바 아래의 指針은 最近까지의 主要指針을 綜合한 것이다. 1973年初 以前까지는 産業別로 특별한 指針이 없었는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⑦ 기타 政策的으로 필요한 事業

以上 政府의 指針을 살펴보면 例外的인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産業別로 特性에 따른 投資比率이 體系的差異를 발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單純勞動集約的 産業이라도 全量輸出事業이던 過半數投資가 가능하고, 內需만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라도 僑胞投資事業인 경우에는 過半數投資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節에서 言及한 대로 各 外國人 投資企業의 投資比率은(따라서 細細産業別 平均投資比率도) 資本導入國의 投資比率에 關한 政策 以外에도 個別企業의 戰略, 製品販賣市場의 性格, 他國 投資競爭企業의 存在與否 등에 影響을 받기 때문에 한두 개의 産業特性으로 産業間 投資比率差異를 설명하기는 매우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産業別 投資比率에 관한 政府施策이 그 동안 얼마나 有效하였는가 혹은 施策中 어느 項目이 가장 강력히 作用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産業의 特性과 投資比率과의 關係를 살펴보았다.

産業別 外國人平均投資比率과 各 産業特性과의 關係를 體系的으로 살펴보기 위하여는 産業分類를 보다 細分化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의 特性에 관한 자세한 資料는 製造業의 경우만 KSIC 5單位 産業까지 入手可能하기 때문에 아래의 分析은 製造業에 局限된 것이다.

1978年末 現在 우리나라 製造業內의 外國人 投資(馬山輸出自由地域 除外)는 總 196個 5單位 KSIC産業들에 分布되어 있었다. 이중 2産業(攝影機 및 映寫機 製造業, 電子樂器 製造業)에 관하여는 産業特性資料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의 分析은 總 194個 5

單位 KSIC 産業들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平均外國人投資比率(最初 投資比率基準)은 이들 194個 産業中 清凉飲料 製造業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新聞用紙 製造業이 6%로 가장 낮았다¹⁴⁾.

이제 産業別 平均 外國人投資比率과 産業特性과의 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命題를 세워 보았다. 첫째, 單純勞動集約의 事業일수록 外國人의 過半數投資를 인정하지 않았고 技術集約의 事業일수록 例外的으로 過半數投資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各 産業의 技術集約도와 外國人 平均投資比率과의 사이에는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所要資金이 막대하고 資本의 懷妊期間이 長期的인 資本集約의 裝置産業에 대하여는 例外的으로 過半數投資를 認定하는 경우가 많았는 바, 産業의 資本集約도와 外國人 平均投資比率 사이에도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內需事業일수록 外國人의 過半數投資를 인정하지 않았고 輸出事業일수록 外國人의 過半數投資를 例外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産業의 輸出集約도

와 外國人 平均投資比率 사이에는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以上 세가지 命題의 檢證을 위하여 사용된 變數는 各各 다음과 같다¹⁵⁾.

- 技術集約度：各産業의 平均賃金水準(1977年)
- 資本集約度：各産業의 總原價中 연료비와 전기료의 비중(1977年)
- 輸出集約度：各産業의 外國人投資企業 平均輸出條件(1977年末 現在)

〈表 14〉는 産業別 外國人 平均投資比率과 産業의 各 特性과의 相關係數를 나타내 주고 있다. 美國과 日本의 경우는 外國人投資比率이 各各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檢證을 시도해 보았다. 資本集約도와 輸出集約도의 경우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각각 外國人 平均投資比率과 正의 關係를 나타내 주고 있다. 즉 資本集約의 혹은 輸出集約의 産業일수록 外國人 平均投資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輸出集約도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그 關係가 統計的으로도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資本集約도의 경우는 日本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關係가 별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反面 技術集約도의

14) 紙面關係上 194個 産業의 外國人 平均投資比率, 産業特性 등에 관한 資料는 실지 못하였음.

15) 技術集約度, 資本集約도는 1977年 鑛工業「센서스」에서, 輸出集約도는 外國人 投資現況 資料에서 구했음. 技術集約도로 各 産業의 平均賃金水準을 사용한 것은 技術集約의인 産業일수록 高級人力の 使用比重이 높고 이에 따라 平均賃金水準이 높을 것으로, 그리고 單純勞動集約의 産業일수록 平均賃金水準이 낮을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資本集約도는 資料問題上 「유틸리티」費用的 比重을 사용하였는 바, 資本集約의인 産業일수록 「유틸리티」費用的 比重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輸出集約도는 이상적으로는 産業의 전체 生産量中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사용하여야 하나 5單位 KSIC 産業別로 이러한 資料를 구하기가 어렵고 輸出産業일수록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輸出條件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資料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本 變數는 엄밀히 말하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産業別 輸出集約도이다(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輸出條件은 대부분 企業들의 경우 1979~80年을 통하여 삭제되었다).

〈表 14〉 外國人 投資比率과 産業特性과의 關係

産業特性	標 本		
	全 體	日 本	美 國
技術集約度	-0.2140**	-0.2772**	-0.1481*
資本集約度	0.0671	0.1496*	0.0840
輸出集約度	0.2742**	0.2855**	0.2944**
關聯産業數	(194)	(175)	(51)

註: 1) 숫자는 두 變數間의 相關係數를 나타냄. *와 **는 두 變數間의 相關關係가 각각 5% 및 1%의 水準에서 統計的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2) 産業特性의 定義 및 資料出處에 관하여는 本文參照, 産業의 範圍는 製造業에 한하였음.

경우는 豫想과는 반대로 外國人 平均投資比率과 모두 負의 關係를 보여 주고 있다. 이 關係는 또한 統計的으로도 매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技術集約的 産業일수록 外國人投資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命題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上記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技術集約的 産業일수록 內需産業의 性格을 띠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⁶⁾. 즉 技術集約的인 측면보다는 內需産業이라는 側面이 강조되어 技術集約的 産業에는 外國人 過半數投資가 별로 許可되지 않았고, 반대로 單純勞動集約的 産業은 輸出産業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外國人過半數投資가 많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다른 經濟政策과 마찬가지로 外國人投資政策에 있어서도 輸出第一主義가 다른 모든 政策目標를 앞서서 風靡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上記 上關分析結果를 참고하고 기타 關聯變數들을 추가하여 194個 産業別 外國人 平均投資比率의 決定要因에 관하여 多重回歸分析을 하여 보았다. 他關聯變數로는 1973年 3月 以前 進出한 外國人投資企業의 比重, 僑胞進出與否, 外國人投資企業의 技術導入 계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았다¹⁷⁾.

16) 技術集約도와 輸出集約度 사이에는 相關係數 -0.5 라는 매우 신뢰할 만한 負의 關係가 있었다.

17) 이들 變數들은 産業自體의 特性이라기보다는 外國人投資企業의 産業別 特性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왜 교포투자의 빈도가 산업에 따라 다른가? 왜 외국인투자가 진출한 시기가 산업별로 다른가? 혹은 왜 일부 외국인투자 기업들만 기술도입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나 이곳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本稿의 分析은 이에 따라 아직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다.

18) 기술도입과 기업소유형태에 관하여 직접 이론을 전개한 논문은 없었으나 Friedmann & Beguin(1971), Oman(1980) 등에 일부 이에 관련된 考察이 있음.

투자비율에 관한 政府의 施策이 1973年 3月 以後 경직화되었기 때문에 1973年 3月 以前에 進出한 外國人投資企業이 많은 産業일수록 外國人 平均投資比率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僑胞의 投資는 例外的으로 過半數投資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僑胞投資事業이 많은 産業은 적은 産業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外國人投資比率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技術導入變數는 다음과 같은 고려 때문에 包含시켜 보았다. 즉 基本的으로 外國人投資家들은 投資企業에 대하여 株式의 多數所有를 통하여 支配權을 行使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技術導入계약, 위탁경영계약 등을 통하여 投資企業의 實質的인 支配가 가능한 바 이런 경우에는 株式의 多數所有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技術導入계약이 체결된 外國人投資企業이 많은 産業은 이러한 企業이 적은 産業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平均投資比率이 낮을 것이다¹⁸⁾.

僑胞投資와 技術導入關係는 關聯産業의 數가 적어 「더미」變數로 사용하였고 1973年 3月 以前 進出企業의 比重은 大部分 産業에 이러한 企業들이 나타나고 있어 實際 比率을 利用하였다.

〈表 15〉는 産業別 平均 外國人投資比率을 從屬變數로 한 多重回歸分析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技術集約도와 輸出集約도는 前述한 대로 相關關係가 아주 높아 각각 獨立變數로 따로 사용하였다(技術集約도와 資本集約度, 그리고 輸出集約도와 資本集約度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신뢰할 만한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各 變數의 符號는 모두 豫想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輸出集約的, 資本集約的

産業일수록, 그리고 1973年 3月 以前 進出한 外國人投資企業이나 僑胞投資企業이 많은 産業일수록 外國人 平均投資比率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技術集約的 産業이나 技術導入을 한 外國人投資企業이 있는 産業일수록 外國人投資比率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3年 3月 以前 進出 企業比重變數는 매우 중요한 變數로 나타나고 있는바, 外國人投資企業 進出時期에 관한 分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하겠다. 技術導入「더미」變數는 技術集約度와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統計的 信賴度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輸出集約度와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統計的 信賴度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輸出集

約度와 技術導入變數 사이의 높은 相關關係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¹⁹⁾, 技術導入變數 自體는 豫想한 대로 어느 정도 負의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全體의 으로는 이들 變數들로서 설명할 수 있는 産業別 平均投資比率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바, 이는 前述한 대로 投資比率이 다른 많은 要素들의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에 不可避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마지막으로 産業別 平均投資比率이 國別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가를 檢討하여 보았다. 만약 外國人投資가 Caves(1971)가 主張하는 대로 主로 産業의 特性에 따라 發生한다면, 産業別 投資比率은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表 15〉 産業別 外國人 投資比率의 決定要因

	常 數	技 術 集 約 度	輸 出 集 約 度	資 本 集 約 度	73.3以前 進 出 企 業 比 重	僑 胞 進 出 與 否	技 術 導 入 與 否	R ²
(1)	58.17 (20.81)**	-9.58 (3.11)**		0.15 (1.16)				0.0527
(2)	52.76 (18.65)**	-9.99 (3.45)**		0.17 (1.38)	0.13 (5.14)**			0.1683
(3)	50.92 (17.62)**	-8.82 (3.05)**		0.13 (1.06)	0.12 (5.01)**	5.64 (2.47)*		0.1942
(4)	51.02 (17.79)**	-7.37 (2.48)*		0.10 (0.86)	0.12 (5.00)**	5.70 (2.51)*	-4.43 (1.95)	0.2102
(5)	43.93 (21.04)**		0.10 (4.04)**	0.16 (1.26)				0.0829
(6)	37.02 (16.12)**		0.12 (4.85)**	0.18 (1.53)	0.14 (5.62)**			0.2135
(7)	36.48 (16.07)**		0.11 (4.66)**	0.14 (1.21)	0.13 (5.48)**	5.82 (2.64)**		0.2416
(8)	37.91 (14.62)**		0.10 (3.95)**	0.12 (1.07)	0.13 (5.42)**	5.83 (2.65)**	-2.62 (1.14)	0.2468

註: 1) 사용된 變數의 定義 및 資料出處에 관하여는 本文 參照.

2)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내며 * 및 **는 나타난 係數가 각각 5% 및 1% 수준에서 통계적 신뢰도가 있음을 나타냄.

19) 輸出集約的 産業일수록 技術導入을 한 外國人業體가 없었음. 두 變數間의 相關係數는 -0.3448로 統計的으로 1% 水準에서 신뢰도가 있었음.

20) 産業別 平均投資比率도 企業別 投資比率과 마찬가지로 40~50%에 많이 集中되어 있는 바 周邊의 몇몇 特定産業들로 인한 統計的 歪曲을 檢定하기 위하여 平均投資比率 30% 以下 60% 以上 産業들을 除外하고 같은 回歸分析을 하여 보아도 〈表 15〉와 비슷한 結果가 나타나고 있음.

이제 日本과 美國投資企業들이 共存하고 있는 37個 5單位 KSIC 産業들에 대하여 日本과 美國企業들의 平均投資比率를 비교하여 보면 두 比率間에는 0.5911이라는 높은(1% 水準의 統計的 신뢰도) 상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²¹⁾. 따라서 特定産業에의 外國人 投資企業은 國籍과 상관없이 비슷한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관하여는 보다 깊은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²²⁾.

V. 規模別 投資比率

本節에서는 投資額의 規模, 그리고 母企業의 規模等과 投資比率과의 關係를 檢討하여 보았다. 投資額의 規模와 投資比率과의 關係를 살펴보는 것은 投資額이 크면 불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母企業이 投資企業에 대하여 支配權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클 것인가 하는 點을 檢討하기 위하여서이다. 먼저 投資規模別로 外國人投資現況을 살펴보면 <表 16>과 같다. <表 4>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西歐와 其他地域으로부터의 投資가 平均的으로 規模가 크고 日本으로부터의 投資가 平均的으로 規模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제 投資規模別 平均投資比率를 國別로 살펴보면 <表 17>과 같다. 日本 및 西歐의 경우는 投資規模가 增加함에 따라 대체로 平均投

資比率이 增加하고 있으나 美國과 其他地域의 경우는 이러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全體적으로 보면 51~5,000千弗 사이의 區間에서는 平均投資比率의 變化가 별로 없는 形편이다.

統計的으로 이들 平均의 差異를 檢證하여 보면 日本의 경우는 規模의 增加에 따른 投資比率의 增加가 많은 경우에 統計的 信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反面, 西歐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投資規模의 增加에 따라 母企業이 投資企業에 대한 支配權을 增加시키려는 傾向이 一般的으로 있으나 하는 命題에 대하

<表 16> 國別 投資規模別 外國人投資企業分布

投資規模 (千弗)	日本	美國	西歐	其他	計
50 이하	135	12	4	3	154
51~ 100	128	20	2	4	154
101~ 500	219	47	12	9	287
501~1,000	32	10	3	4	49
1,001~5,000	42	13	11	15	81
5,001 以上	7	5	3	2	17
計	563	107	35	37	742
平均 投資 規模 (千弗)	617	1,067	2,285	2,075	833

註: 最初投資額 基準임.
資料: 經濟企劃院.

<表 17> 國別 投資規模別 平均投資比率

(단위: %)

投資規模 (千弗)	日本	美國	西歐	其他	平均
50 이하	47.5	54.3	41.3	41.0	47.7
51~ 100	50.3	66.3	55.5	84.8	53.3
101~ 500	52.4	56.6	53.2	48.4	53.0
501~1,000	56.8	56.2	53.3	22.5	53.6
1,001~5,000	57.6	54.2	54.8	38.5	53.1
5,001 以上	70.3	48.0	64.7	37.5	58.9
平 均	51.6	57.4	53.5	44.3	52.2

註: 最初投資額 및 最初投資比率 基準임.
資料: 經濟企劃院.

21) 品目別 平均投資比率를 利用한다면 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資料關係上 이러한 「테스트」는 행하지 못하였다.

22) 이와 관련하여 Kojima(1973)의 理論과 Caves(1971)의 理論은 相互 補完的이라는 이정훈 교수(1980b)의 論文을 참조할 것.

여는 現段階에서는 明確한 解答이 어려운 實情이다²³⁾.

母企業의 規模와 投資比率과의 關係를 살펴보는 것은 母企業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獨寡占的이고 經營이 中央集權的일 것으로, 그리고 이에 따라 子企業에 대한 支配權을 行使하려는 傾向도 더욱 클 것으로 豫想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外國人投資企業別로 母企業의 規模를 살펴보는 것은 방대한 作業을 要求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포춘」誌가 每年 掲載하는 美國의 1,000大企業(美國의 경우), 혹은 世界의 500大企業(其他의 경우)에 母企業이 포함되는 그룹과 포함되지 않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平均投資比率을 비교하여 보았다.

〈表 18〉은 國別로 母企業이 1977年 「포춘」誌의 大企業 「리스트」에 포함된 企業과 포함되지 않은 企業과의 平均投資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과 美國의 경우는 母企業이 大企業인 경우가 오히려 投資比率이 낮게 나타나고

〈表 18〉 母企業의 規模와 平均 投資比率¹⁾
(단위: %)

母企業區分 ²⁾	日本	美國	西歐	其他	計
大 企 業 (件 數)	48.2 (50)	55.6 (34)	60.3 (12)	47.2 (6)	52.0 (102)
其 他 企 業 (件 數)	51.9 (513)	58.3 (73)	49.9 (23)	43.8 (31)	52.2 (640)
計 (件 數)	51.6 (563)	57.4 (107)	53.5 (35)	44.3 (37)	52.2 (742)

註: 1) 最初投資比率 區分임.

2) 大企業은 美國의 경우는 「포춘」 1,000大企業內에, 其他의 경우는 「포춘」 世界 500大企業內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함. 「포춘」誌는 1977年 資料利用.

資料: 經濟企劃院.

23) 單一企業의 規模別 投資比率을 살펴보면 前述한 傾向이 나타날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나 本稿에서는 資料關係上 이러한 檢定은 시도하지 못했음.

있으며 西歐와 其他 地域의 경우는 그 反對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統計的으로 신뢰할 만한 平均投資比率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母企業의 規模와 投資比率 사이에 體系的 關係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結果的으로 投資比率은 投資國이나 資本導入國의 政策 혹은 投資對象產業의 性格과는 밀접한 關係가 있으나 投資의 規模나 母企業의 規模와는 體系的인 關係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I. 結論 및 政策的 意味

以上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進出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比率에 관하여 一般的 推移, 國別, 產業別, 規模別 패턴 등을 살펴 보았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有形態別 分布를 통하여 우리는 最近 小數 혹은 共同所有企業이 크게 증가하였고 多數 혹은 完全所有企業이 감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傾向이 投資比率에 관한 政府의 施策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投資比率制限趨勢는 대부분 開發途上國들의 경우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外國人 完全所有企業의 比重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바(表 7 및 表 8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企業의 參與를 制限하기로 유명했던 日本, 印度, 中東國家들보다도 外國人 投資比率의 制限이 그 동안 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統果는 또한 우리나라에의 外國人投資가 그 동안 왜 대만, 홍콩, 필리핀보

다도 적었던가 하는 理由를 일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外國人投資決定에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은 外國人投資比率에 關한 政策보다는 國內市場規模, 資源賦存狀況, 一般 혹은 部門別 經濟政策 등으로 판단되나 비슷한 環境에 처해 있는 國家들이 여럿 存在할 때에는 投資比率에 關한 政策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投資比率에 대한 統制가 별로 없었다면 實際로 어느 分野에 더 많은 投資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問題에 관해서는 國別·產業別 投資패턴의 比較 등 더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이나, 投資比率制限은 우리나라의 경우 分明 外國人投資抑制의 한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外國人投資比率의 制限은 보통 外國人投資로 인하여 發生하는 附加價値를 최대한 國內에 殘留시키고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活動이 經濟開發計劃目標과 合致되도록 國內參與企業의 經營支配權을 최대한 증가시키고자 함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外國人投資企業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前述한 대로 株式의 所有가 아닌 다른 方法(技術導入契約, 原資材 혹은 部品導入契約, 委託經營契約, 拒否權條項等)을 통하여 投資企業에 實質의 支配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內國人投資比率의 증가가 곧 內國人支配權의 증가를 意味하는 것은 아님에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²⁴⁾.

投資比率의 制限은 반면 自國에 필요한 投資를 全般的으로 감소시키거나 產業別 投資패턴을 歪曲시킬 수 있다. 이는 投資比率制限自體가 하나의 政策目標가 될 경우 外國人投資政策一般 혹은 經濟開發政策全般的의 目標와 相馳되는 結果를 惹起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投資比率의 制限은 外國人投資政策 나아가서는 經濟開發政策의 目標와 相馳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만 經濟的 效率를 喪失치 않고 소위 “國家經濟의 自立度”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²⁵⁾.

產業의 性格別로 投資比率推移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輸出增大라는 目標가 技術移轉이라는 目標보다 항상 우선하여 輸出을 위한 外國人投資事業은 投資比率에 거의 制限을 받지 않고 許可된 감이 있고 技術集約的 事業은 大部分 內需產業의 性格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投資比率에 많은 制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약 一部 技術集約的 外國人投資事業이 投資比率의 制限 때문에 國內에 導入되지 않았다면 이는 技術移轉을 통한 國內產業構造合理化라는 보다 큰 目標에 相馳되는 결과로서 빠른 시일內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外國人投資比率條件을 완화하더라도 內國人 雇傭 혹은 訓練條件을 강화함으로써 技術移轉 效果를 增大시킬 수도 있고 國內原資材使用條件 등을 一部 추가시킴으로써 國內에 殘留하는 附加價値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內需의 獨占이 憂慮되는 產業일 경우에는 外國人投資

24) Billerbock and Yasugi(1979)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투자비용에 대한 집중적 제한이 외국인 투자비용 자체의 감소는 가져왔을지 모르나 내국인 기업지배권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 이와 관련하여 극히 최근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투자정책개선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즉,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동안은 외국인 투자의 폐해를 방지코자 외국인 투자규제에 주로 신경을 썼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규제의 효과에 회의를 갖게 되고 세계 불경기가 심화되어 다시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Franko (1978), Feldman (1978)을 참조할 것.

誘致를 위한 각종 惠澤을 制限하거나 外國人 投資 혹은 輸入을 自由化시킴으로써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結論적으로 外國人投資比率의 制限은 그 自體가 目的이 되어서는 안되고 外國人投資政策

혹은 經濟開發政策의 目的과 合致되는 方向에서 伸縮性있게 運用되어야 外國人投資의 經濟發展에의 寄與度を 極大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金贊鎭, 『外資導入論』, 一潮閣, 1976.
- 大韓商工會議所, 『韓國人の投資の手引き』, 1974.
- 日本通産省, 『我が國企業の海外事業活動』, 1979.
- Billerbock, K., and Y. Yasugi, "Privat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348, July 1979.
- Caves, R.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 1971.
- Curhan, J.P., W.H. Davidson, and R. Suri, *Tracing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1977.
- Economic Planning Board, *Guide to Investment in Korea*, 1976.
- Feldman, G.M., "Coping with New Challenges to Investment Ventures Abroad," *Commerce America*, July 3 and 17, 1978.
- Franko, L.G., *Joint Venture Survival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aeger Publishers, 1971.
- _____, "Multinationals: the End of U.S. Dominance,"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78.
- Friedmann, W.G., and J.P. Beguin,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 Friedmann, W.G., and G. Kalmanoff, *Joi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3.
- Lee, C.H., "U.S. and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Fed. 1980a.
- _____,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imeographed, 1980b.
- Oman, Charles, "Changing International Investment Strategies: The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onference Document Number R(80) 13 14, OECD, 1980.
- Wright, R.W., and C.S. Russel, "Joint Ven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Realities and Respons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ummer 1975.